

어업을 위한 전통적인 작업복

구시로의 어업은 특히 혹독한 겨울철에는 중노동이었습니다. 근대의 따뜻한 천이 생기기 전까지 어부들은 ‘사시코’라고 불리는 짧은 겂옷(이 지역에서는 ‘돈자’라고도 함)을 입고 보온에 힘썼습니다. 이 겂옷의 이름은 쪽 염색을 한 면이나 삼베 천을 겹쳐 꿰매는 데 사용하는 ‘사시코’라는 흙질의 일종인 바느질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. 바느질이 만들어 낸 무늬가 있는 이 겂옷은 실용적이면서도 장식적이었습니다. 이 겂옷은 가족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.

‘사시코’는 기모노처럼 생겼으며,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천을 겹쳐대고 소맷단은 좁게 되어있었습니다. 다음 해의 어로기에 대비해 겨울 동안 이 ‘사시코’를 만들고 수리하는 것은 보통 어부 아내의 일이었습니다. 홋카이도에서는 에도시대(1603~1867 년)부터 메이지, 다이쇼시대(1868 년~1926 년)에 모직물과 면플란넬이 수입되어 널리 사용되기 전까지 ‘사시코’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.